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69.07	↑ 코스닥	689.55
	(+52.21)		(+4.13)
↓ 금리 (연율)	2.915	↓ 환율 (원/달러)	1398.20
	(-0.026)		(-0.60)

미래 일상 재편 '자율형 IoT 시대' 스마트홈 → 스마트시티 혁신 도약

AI가 그리는 초연결 미래

〈중〉 지능형사물인터넷

2029년 AIoT 시장 3100조 AI·IoT융합, 전영역 재구성 기기 연결 넘어 자율형 진화

2023년이 챗GPT의 해였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의 시대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융합으로 AIoT는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하며 일상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하고 있다.

AIoT 시장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AIoT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600조원에서 2029년 약 3100조원까지 연평균 2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5년까지 전 세계 가정의 절반 이상이 최소 5개 이상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연결을 넘어 '자율형 IoT'로 진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 신한은행 AI브랜치에서 고객이 AI로 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AI 브랜치는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들을 AI 은행원과 디지털 기기들이 수행한다. 고객은 입구에서 AI 은행원을 통해 창구를 안내받는다. 계좌나 체크카드 신규, 외화 환전, 제신고 등 업무들을 AI 은행원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뉴스

AIoT는 단순히 기기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형 IoT'로 진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5G·6G,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AIoT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AIoT 기술의 미래는 옛지 A

I와 퀀텀 IoT 같은 차세대 기술에 달려 있다. 옛지 AI는 데이터 처리를 클라우드가 아닌 디바이스 자체에서 수행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해 웰컴,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퀀텀 IoT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연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기술이다. IBM은 이미 양자 암호화 기술을 IoT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해킹 불가능한 IoT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스마트홈, AIoT 혁신의 '최전선'

AIoT 기술의 진화는 스마트홈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스마트홈은 집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가 연결돼 자율 작동하는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주거 환경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조명이나 온도를 제어하던 수준을 넘어, 가정 내 모든 기기를 연결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홈의 선두 주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홈 루틴을 제안한다.

(3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의 대응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강연 : 김해배 디파인 대표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XR시장 전망 하현석 큐빅 CTO -AI 혁신을 위한 미래 데이터-합성데이터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I센터장(변호사) -AI와 살아가야 하는 시대-활용과 노동시장의 전망



빛 못 갚는 개인사업자 속출... 인터넷은행 대출 건전성 '경고등'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업대출 잔액 41% 급증 고정이자여신비율 올라 연체율도 동반 상승세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린 가운데 빛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기업대출 잔액은 2조 7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조 9246억원)과 비교하면 41% 급증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잔액은 1조 6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5% 늘었다. 케이뱅크는 1조 474억원으로 같은 기간 7% 증가했다.

기업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가계대출은 40조 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21.7조원)과 비교해 87.6% 증가한 수준이다.

인터넷은행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0조 5863억원에서 올해 3분기 56조 3671억원으로 11.3%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지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금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로 넘어가면서 부실비중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수년째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빛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난 탓이다.

카카오뱅크의 고정이자여신금액은 지난해 말 24억원에서 올해 3분기 97억원으로 늘었다. 고

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0.25%에서 0.58%로 크게 상승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총 기업대출 금액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자여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케이뱅크의 고정이자여신금액도 같은 기간 26억원에서 89억원으로 늘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85%로 지난해 말 0.27%와 비교해 3배가량 상승했다.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5%에서 올해 3분기 1.21%로 늘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0.78%에서 1.72%로 상승했다.

연체율은 기업대출에서 1개

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중을 말한다. 통상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장기 연체로 이어지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져 원리금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이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손충당금은 44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7억원(12%) 늘었다. 케이뱅크의 대손충당금도 3246억원으로 같은 기간 8%(257억원) 증가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경영전략

팀장(COO)은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대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개인사업자대출"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은 출시 이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고, 상환기간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은 법률상 기업대출 취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빛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전남해상풍력단지 헬기 시찰 "에너지 안보 기반"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허위 답변 논란'에 한때 파행

▲ 민주, 명태군 녹취 추가 공개... "윤한홍을 어떻게 선거판에 비서실장 쓰나"
▲ 군, 장거리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 KADIZ까지 항공기 탐지·추적



▲ 김동연 "이재명 플랜B? 지금 그런 것 논의할 때 아냐"
▲ 한 총리, 오후 회 애국지사 추모... "애국지사 끝까지 최선 다해 모시겠다"

尹, 브라질 G20 일정 돌입... 글로벌 빈곤퇴치 방안 등 제시

개발도상국-선진국 가교역할 강조
'러-북'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 제기
남아공·멕시코·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아오 공군기지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위기,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2분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아오 공군기지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파비우 실바 공군기지 단장,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

석해,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중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여 방안을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20 참석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 중간 북수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부실 발생시 공적자금 사용 안해... 자기책임원칙 강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간담회
내년 예금보험 3.0시대 준비 박차
“예보한도 1억 대비 금융계정 필수”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앞으로는 금융사 부실발생시 공적자금과 타업권의 금융계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해당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내년부터 예금보험 3.0

시대를 위해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1996년 제도를 마련한 이후 외환위기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자 공적자금을 투입,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전 업권 금융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다. 서서히 공적자금과 특별계정의 상환이 종료되는 만큼 예보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타업권이 적립해 놓은 기금과 보험료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예보제도(자기책임원칙·상호부조원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후 수단이어야 할 방안을 쓰는

것을 끝내고, 예보제도 중 ‘자기책임원칙과 상호부조원칙’에 따라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때보다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을 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예금보호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유동성 경

색을 겪을 조짐이 보이면 예금보호기금의 자금 일부를 금융안정계정으로 차입하고, 이 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급보증, 대출, 출자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각 금융사가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금융안정계정으로 보낸다.

특히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더 필요하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게 되면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유리기자 yul115@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K-기업, 반도체 신기술 소개

슈퍼컴퓨팅2024

삼성, CXL 기반 D램 전시
SK, HBM3E 8단·12단 소개
디노타시아 등 부스 운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슈퍼컴퓨팅 2024(SuperComputing2024)'에 참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기술들을 선보인다. SC 2024로 불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참가해 연구성과와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

SC 2024 콘퍼런스가 17일부터 2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려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신기술을 겨룬다.

SC 콘퍼런스는 미국 컴퓨터학회(ACM)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컴퓨터학회가 1988년부터 개최하는 세계적인 컴퓨팅 관련 행사다. SC콘퍼런스에 참가한 글로벌 업체와 학회 등은 HPC, 네트워킹,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

이번 SC24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가해 최첨단 AI 반도체와 이룩한 컴퓨팅 기술을 선보인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슈퍼컴퓨팅과 데이터센터에서의 AI 반도체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전세계 고객사에 기술력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두 기업 모두 HBM과 CXL 등을 중심에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전시 부스만 운영하고 추가 패널 토의 등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참석했던 삼성전자는 HBM3E(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해 CXL(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D램 제품, 8세대 V낸드 기반 PCIe(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 5.0 등



CMM-D(CXL Memory Module-DRAM)/삼성전자



CXL 2.0 제품 /SK하이닉스

을 전시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양산을 시작한 HBM3E 8단 및 12단을 비롯해 CMM(CXL 메모리 모듈)-DDR5, 생성형 AI에 특화된 GDDR6-AiM 기반 가속기 카드 'AiMX', 고성능 컴퓨팅(HPC)과 AI 서버를 위한 초고속 메모리 모듈 DDR5 MCRDIMM, 데이터센터 최적화된 PS1010 E3.S eSSD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AiM은 메모리 내에서 일부 연산을 수행해 기존 메모리 대비 높은 대역폭과 우수한 에너지 효율성을 보이는데, SK하이닉스의 AiMX는 GDDR6-AiM 칩을 사용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특화된 AI가속기 카드 제품이다.

올해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도 참가한다. 디노타시아, 망고부스트, 파네시아 등이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반도체산업협회 통합 부스를 통해 리벨리온, 모빌린트, 수퍼게이트, 파두, 모레, 하이퍼엑셀 등 6개 기업도 참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부동산PF 수수료 줄어든다 용역·서비스에만 대가 부과

금감원, 과도한 수수료 관행 개선
차주에 수수료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세훈 부원장 "운영 리스크 경감"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시 용역·서비스에만 대가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했던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부터 가동한 TF에는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 유관 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 참여했다.

개선된 제도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수수료 체계 정비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도록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분양물 미달 등 발생 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단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부동산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업계 한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엔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보안사고 매년 20% ↑... 기술 표준화도 과제

>> 1면 '미래 일상 재편...'서 계속

또 삼성의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은 AI를 통해 사용자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등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의 'LG 씽큐' 플랫폼도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적정 시간에 커튼을 열고 선호하는 음악을 재생해 기상을 돕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실내조명과 음악을 자동 조절하는 '감성 케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시티'로

AIoT 기술은 가정을 넘어 도시 전체로도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5G·6G 네트워크의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oT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첨단 도시 모델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도시 문제를 AI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AIoT 기술

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세종시는 AI 기반 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흐름을 최적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AIoT의 급속한 발전은 데이터 보안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oT 기기 관련 보안 사고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는 '넥스레저' 플랫폼을 통해 IoT 디바이스의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매터(Matter)'를 함께 출범했다. 매터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 표준으로, 이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의 기기들을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다.

정부는 AIoT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6G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강**지
학부모에게 **신**뢰

서울교육이 다시 시작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질주에 '최대 실적'... 코스닥은 뒷걸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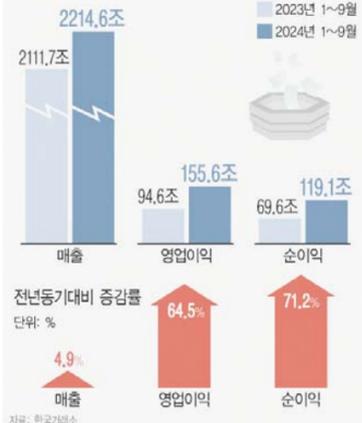
3분기 희비 엇갈린 상장사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64.5% 급증
전기전자 업종, 영업이익 2018% ↑
코스닥 영업익·순이익 모두 감소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의 희비가 엇갈렸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부문의 선전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코스닥은 영업익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1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24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사 706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2214조6098억원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4.9% 소폭 증가했다. 영업 이익과 순이익도 155조6463억원, 119조12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4.5%, 71.2%씩 급증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연결 영업이익은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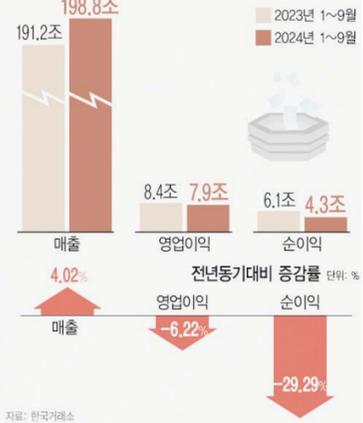
코스피 상장사 3분기 실적



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개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4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증가세를 보였다. 연결 매출액은 3.59% 소폭 오르고, 영업이익(42.36%)과 순이익(52.93%)은 전년 대비

코스닥 상장사 3분기 실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코스피 연결매출액 비중은 10.2%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 17개 업종 중 전기전자, 운수창고업 등 12개 업종이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반면, 철강 금속, 비금속광물(-2.98%) 등 5개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기전자(2018.48%), 전

기가사업(흑자전환) 등 9개 업종이 증가하고, 철강금속(-37.12), 기계(-22.01%) 등 8개 업종이 감소했다. 순이익도 전기전자(648.64%), 전기가사업(흑자전환) 등 9개 업종이 오르고, 화학(-44.22%), 기계(-39.82%) 등 8개 업종은 내림세를 보였다. 전기전자 업종의 성장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614개사 중 분기순이익 흑자기업은 2분기 대비로는 56개사 감소했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19개사 증가했다. 반면, 적자기업은 2분기 대비 56곳 증가하나 작년에 비해서는 19개사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직전 분기보다는 둔화세가 나타난 모습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부진한 3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닥 12월 결산 상장사 1153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조87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2% 감소했다. 동일 기간 순이익도 4조3075억원으로 29.29% 줄

었으며, 매출액만 4.02%(198조8416억원) 소폭 증가했다.

3분기 개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순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1.70%, 순이익은 67.34% 감소했고, 매출액도 1.16% 줄어들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1153개사 중 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58.02%인 66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41개사(3.5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적자기업은 41.98%로 전년 동기 대비 41개사 늘어난 484개사로 집계됐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도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은 재무실적,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 우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해당 기업들의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3%, 1.62% 감소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대한상의 “상속세 개편으로, 기업 지속 가능성 높여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개 이유’ 기업의 혁신 저해하는 주요 원인 G7 국가 비교해 과도한 세율 문제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

세율은 60%에 달한다.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추가부양 제약 등 경제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

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는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증시 안정화 위해 밸류업 펀드 2000억 투입”

금융위, 증시 상황 점검회의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필요시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 비율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증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증시 상황 점검 회의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환경의 변동성이 당분간 높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

되면서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 외 주요국은 미국 신청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유·불리 전망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주력 수출산업 미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하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관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만큼 기관 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해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해 주택 1채 이상 매입자 102만명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발표 2채 이상 다주택자 24.4만명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이 주택을 1채 이상 매입했다. 주택의 성별 소유현황은 최근 여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46.2%에 달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 동안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이었다.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었다. 무주택자였다가 매입한 사람은 71만9000명(2.1%)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에 비해 지난해 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늘어났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비중은 2022년도(85.8%)와 비교해 0.1%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소유가 840만9000명(53.8%), 여자 소유가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가 예년 대비 비중 증가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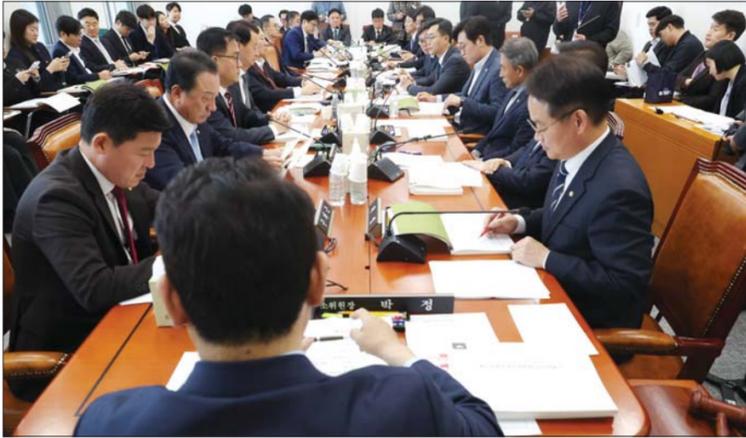
“檢 특활비·김건희 예산 삭감 저지” vs “지역화폐 등 증액”

〈輿〉

〈野〉

예결위 예산소위

내년 677兆 규모 예산안 살바싸움 輿 “李 방탄용·‘묻지마’ 삭감” 지적 野, 대통령실·경호처 삭감도 추진



박정(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살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

위·국도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 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싹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 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 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사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1심 판결’에 비명계 행보 주목... 친명계, 내부결속 강조

내달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예정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등 접촉 친명계 ‘단일대오’... 견제 움직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

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걸잡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輿野, 오는 22일까지 국회 뭉 헌법재판관 추천절차 마무리

내달 2일, 10일 본회의 진행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뭉의 헌법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내달 2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뭉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본

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들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은 것”이라

며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르게 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옳은 길을 가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 됩니다

바른 경영, 바른 금융이란
오래전부터 알고있던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
그 가치를 고객과 함께 하는 것,

BNK 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으로 바르게 行하겠습니다



허윤홍 “고객지향·신뢰가치 담아, 실질적 혁신 보여줄 것”

〈GS건설 대표〉

GS건설 ‘자이 리이그나이트’

22년만에 자이 브랜드 리뉴얼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의지
특별한 일상경험 제공 목표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 강화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더 이상 공급자 관점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고객지향과 신뢰의 가치를 담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 행사에서 “자이(Xi) 리브랜딩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자이 브랜드의 새 단장을 선언하는 자리다. GS건설이 자이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런칭 후 22년 만이다.

가장 큰 변화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18일 서울 강남구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 행사에서 새로운 자이(Xi) BI와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GS건설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 자이가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으로 공급자적 관점이었다면 새로운 자이는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eXperience Inspiration)’으로 고객의 삶을 중심으로 했다.

허 대표는 “기업이 혼자 만들어 출시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과 임직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자이 리브랜딩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으로 앞으로 규모 면에서 최고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부터 협력사까지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상상과 협력의 브랜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브랜드 리뉴얼은 일단 브랜드 교체나 추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자이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 브랜드 외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 브랜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상의 GS건설 도시정비기획 담당은 “기본적으로 자이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 외의 브랜드는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단일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기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현장경영을 강조해 왔다. 올해 시무식도 현장에서 가졌다.

그는 “그간 고객과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혁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실제 임직원 인터뷰를 통

해 새로운 비전을 도출했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것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주택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GS건설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면 기업가치 면에서 어려운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분야로 진출이나 투자도 하지만 과거 플랜트 수주 경쟁처럼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자이의 로고는 기존의 곡선이 상징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계승하지만 현대적이고 간결한 직선 요소와 두께감을 더했다. 강인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색상도 기존 대비 좀 더 짙게 더해 깊은 브랜드 정신을 표현했다.

새로운 자이(Xi) 로고는 이날 브랜드 리뉴얼 선포식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장기적인 투자·성장에 역량 배분하겠다”

신학기 수협은행장 취임 차별화·소통강화·협력 약속

신학기 수협은행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주전환의 책임자로 낙점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강신숙 전 은행장이 수협은행의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만큼 어깨가 무겁다.

18일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 행장은 “차별화”를 강조하며 “변해야 한다. 조직과 내가 바뀌겠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행장은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투자와 성장에 역량을 배분하겠다”며 “영업점에 방문하는 본부부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참석했다. 노 회장은 “신학기 은행장 임기 중에 수협은행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반칙 없는 비합리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짜 멋진



신학기 신임 수협은행장이 취임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수협은행

수협, 괜찮은 은행을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신 행장은 1968년생으로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동아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어 ▲리스크관리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대관 담당 등 요직을 역임했다. 수석부행장직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행했다. 수협은행 내부적으로 전략과 재무를 총괄한 ‘재무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 행장은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인선 절차를 1차에서 끝냈다. 그간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 평가다. 이번 행장 인선에는 임기 기간 호실적을 낸 강신숙 전 행장 또한 도전장을 던졌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주전환 성과 부진에 따른 것이라 분석이다.

신 행장의 우선 과제는 수협은행의 지주전환이 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상환하면서 총 1조1581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갚았다. 이후 강 전 행장 체제에서 지주전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남다른 공을 들였지만 자회사 M&A(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시너지도 관건이다. 노 회장과 강 전 행장의 경우 ‘현장 중심 경영’에서 궤를 함께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당선되면서 곧 임기 3년 차에 접어든다.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7년 2월까지다. 사실상 임기 종료까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수협은행장인 셈이다.

한편, 신 행장의 임기는 2년이다. 수협은행의 지속 가능 기반 형성을 강조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지주 전환을 위한 인수 합병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토스뱅크,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조성 앞장

서울시와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맞춘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

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 웹

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확대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워드 토스뱅크를 선언하고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인 바 있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피터 램(Peter Lam)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마가렛 풍(Margaret Fong) 상임이사가 조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홍콩서 시니어 자산가 특화금융 준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협력
현지에서 글로벌 PB 전진 배치

“홍콩에도 글로벌 프라이빗뱅킹(PB)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

하나금융그룹은 18일 함영주 회장이 ‘피터 램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홍콩과 한국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국내 13개의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함 회장은 국내 금융사 중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중인 하나금융 글로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하나금융은 전세계 26개 지역 221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터 램 회장은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한국이 선도중인 ESG,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은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금융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 회장은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10월 그룹의 미래 핵심전략으로 론칭한 시니어 특화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소개했다.

현재 홍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재테크, 연금, 보험, 신택, 헬스케어, 주거 등 시니어들의 주요 관심사에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콩에도 글로벌 PB를 전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LG, 'CES혁신상' 석권 반도체·모바일 등 53개 수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등 29개 '갤럭시 버즈3 프로' 최고혁신상
LG전자 AI·생활가전 등 24개 '올레드 TV' 13년 연속 혁신상

국내 전자업계 양대산맥인 삼성·LG 전자가 올해도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를 앞두고 발표된 혁신상을 대거 휩쓸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지난 14일(현지시간)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다.

◆삼성 29개 혁신상 휩쓸어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6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5개, 반도체 3개, 하만 1개 등 총 29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 3개를 수상했으며 2025년형 TV, 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로 13개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냉장고에 보관된 식재료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포함한 2025년형 가전 신제품과 서비스로 4개 혁신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사운드와 적응형 소음 제어 최적화가 적용된 '갤럭시 버즈3 프로'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고 '갤럭시 AI',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갤럭시 워치7'로 4개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 수상 제품 이미지(왼쪽하단부터 갤럭시 버즈3 프로, 엑시노스 W1000, LPDDR 5X, 갤럭시 AI,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워치7 갤럭시 탭 S10). /삼성전자



3년 연속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LG 올레드 TV'. /LG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는 'LPDDR5X', '엑시노스 W1000'과 'ALoP(All Lenses on Prism)' 이미지 센서 솔루션 총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하만 인터내셔널은 'JBL 투어 프로3' 무선 이어폰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SDI는 처음으로 CES에 제품을 출품해 배터리 사업 부문별 대표 제품들이 모두 수상에 성공했다. 수상 제품은 'PRiMX680-EV', 'PRiMX680 Module+', 'SBB(Samsung Battery Box) 1.5', 'PRiMX50U-Power' 등 4개 제품이다.

◆LG, 3년 연속 CES 최고 혁신상 수상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 AI, 생활가전, 게이밍, 컴퓨터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루 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TV는 영상디스플레이와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 총 6개 혁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3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첫 출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1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다.

LG전자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web)OS'도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AI홈 허브 'LG 씽큐 온'도 CES 혁신상을 받았다. AI홈의 '두뇌' 역할을 하는 LG 씽큐 온은 집안 가전과 IoT 기기들을 24시간 내내 연결 상태로 상시 유지하는 핵심 디바이스다. '이동형 AI홈 허브(Q9)'는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부문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Q9은 음성·음향·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센싱 능력을 갖췄다.

LG이노텍은 차량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넥슬라이드 A+'는 LG이노텍의 차량 조명 전문 브랜드인 넥슬라이드 시리즈 제품 중 하나로, LG이노텍 고유의 면광원 기술을 적용해 별도 부품 없이 모듈 하나만으로 밝고 고른 빛을 내는 것이 강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韓-페루 방위산업 협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세사르 베나비데스 페루 시마조선소 소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잠수함 공동개발 MOU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HD현대, '팀 코리아' 최전선

시마조선소 잠수함 공동개발 MOU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시마조선소 현대화와 페루 조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등 페루 정부 및 해군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후속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합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합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합정 수주는 국방부, 대한민국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한국 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가 돼 거둔 성과로 주목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세사르 베나비데스(Cesar Augusto BE NAVIDES Iraola) 시마조선소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는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실질적 현지화와 산업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시마조선소 현대화와 페루 조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등 페루 정부 및 해군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후속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합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합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합정 수주는 국방부, 대한민국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한국 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가 돼 거둔 성과로 주목 받았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중남미에 생산 거점이 될 페루의 합정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이어나가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로봇산업 기술협력 등 협업 추진

LG에너지솔루션이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글로벌 로봇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실리콘벨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비 플러스',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 카티' 등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2170)를 단독 공급하고, 향후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Empower Every Possibility)'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하면서 "로봇과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Non-EV 산업 영역으로 제품 및 고객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계약 및 협업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영역으로의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어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지난 2017년 미국 실리

콘벨리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글로벌 최초로 서빙로봇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100% 자율주행 및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베어로보틱스는 이번 배터리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을 계기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양사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STX, 차륜형 장갑차 '백호' 수출

페루에 백호 30대 공급 예정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K-방산'의 세계화에 적극 힘쓰고 있다.

STX는 지난 15일 페루에 국산 차륜형 장갑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계약은 STX가 지난 5년간 페루에서 공들여 추진한 프로젝트로 국산 전투장갑차의 중남미 최초 진출 사례다.

특히 이번 방산 계약은 페루 AP EC에서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며 양국 대통령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STX는 현대로템의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페루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STX는 K808 장갑차뿐만 아니라 군사용 차량, 순찰차, 엠블런스 차량 등 다양한 군사용 차량을 현지에서 조립·생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TX는 페루 육군의 군용 및 특수차량 조달에서 우선 공

급자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3년부터 페루 리마에 지사를 두고 지난 10여년간 약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해군 경비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STX의 종합상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결과이다. STX는 이번 육군 장갑차 사업을 시작으로 중남미 방산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으며 국내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향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TX 관계자는 "본 계약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 리마무역관, 주페루대한민국 대사관 등 정부 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라며 "STX가 페루 육군조병장으로부터 후속 주문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차량을 조달한다는 목표도 K방산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휘센 뷰 사계절 에어컨' 출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적용

LG전자가 AI(공감지능) 기술로 냉방, 제습은 물론 온풍까지 이용하는 스탠드형 올인원 에어컨 '휘센 뷰 사계절 에어컨(사진)'을 18일 출시한다.

LG전자의 차별화된 핵심부품인 듀

얼 인버터 컴프레서로 냉매를 압축·순환시켜 따뜻한 바람을 만드는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했다. 전기로 열풍을 만드는 기존 히터 방식 대비 이용자의 전기로 부담도 줄여 준다. 환절기 뿐 아니라 실외 온도가 영하 10℃ 수준으로 떨어져도 5단계의 일반 온풍과 파

워 온풍이 가능하다.

아울러 'AI 스마트케어' 기능을 통해 따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LG 씽큐(Thin Q) 앱에서 에어컨과 가구의 위치를 설정하면 AI가 공간을 분석해 최적의 바람을 내보낸다.

/구남영 기자



“반도체 산업 새 전환점... 100년 미래 만든다”

삼성, 'NRD-K' 설비 반입식 개최
10.9만㎡ 규모 복합 연구개발 단지
20조 규모 R&D 투자 경쟁력 확보
미래 반도체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석을 다졌던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 설비 반입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K' (NRD-K)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 중인 10만9000㎡(3만3000여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로서 오는 2030년까지 총 투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DS부문 주요 경영진과 설비 협력사 대표, 반도체연구소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전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



18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NRD-K 설비반입식'에서 전영현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역사' 세운 기흥서 다시 도약 꿈꾼다

기흥캠퍼스는 1983년 2월 도쿄선언 이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고, 1993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등을 이뤄낸 반도체 성공 신화의 산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 기흥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차세대뿐 아니라 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취임 1주년을 앞뒀던 지난해 10월에도 기흥캠퍼스 건설현장을 찾아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반도체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태동지인 기흥에 미래 기술 연구의 핵심인 NRD-K를 건설해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고, 기술력과 조직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NRD-K, 첨단 반도체 생태계 중심 역할 기대

NRD-K는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의 인프라를 갖춘 예정이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고해상도 EUV 노광설비나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두 장을 이어 붙여 혁신적 구조를 구현하는 웨이퍼 본딩 인프라 등을 도입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내외 소재·부품·설비 회사들이 소재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삼성전자는 NRD-K 조성으로 기흥은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삼성전자는 협력 회사와 R&D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설비 반입식에 참석한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사장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혁신의 속도를 높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연구개발 분야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700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첨단 패키징 설비를 확대하는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 고객센터’ 오픈 통신특화 LLM 적용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텔코(Telco) 거대언어모델(LLM)과 대규모 멀티모달모델(LMM)을 활용한 고객센터 AI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열고, 한 달여간 베타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SKT는 자체 개발한 Telco LLM/LMM을 실제 상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SKT는 그간 엔트로픽사 등 해외 주요 LLM 업체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신 전문 지식을 학습한 Telco LLM을 개발해 왔다.

먼저 Telco LLM 기반의 AI 지식 검색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상담사가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상담사 대신 정보를 검색해 정리해 준다. 이를 통해 상담사들의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사 개인의 역량/경력과 무관하게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21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통해 실제 상담사들이 상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 보며 안정화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고객 상담 업무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로 이차전지 국산화 앞장

전구체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화 실현
중 의존도 극복, 기술 보호 본격화

정부가 고려아연이 보유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했다.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최종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술은 국가첨단산업기술로도 지정됐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시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은 기술은 구체적으로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의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

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간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무려 97%에 달하면서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의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의 국내 대량 양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자회사 캠프코를 통해 울산시에 ‘울인원 니켈 제련소’를 착공했으며, 내년 중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시티스케이프2024에서 진행된 팀 네이버-NHC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네이버

팀네이버

디지털 트윈 플랫폼 중심 사우디와 합작법인 설립

팀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책부 산하 국영기업 NHC(National Housing Company)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팀네이버와 NHC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시티스케이프2024에서 공동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새 합작법인은 네이버 아라비아 산하에서 NHC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운영 및 사업화 등을 핵심 업무로 영위할 예정이다. 이번 합작법인은 팀 네이버가 중동에서의 기술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할 첫 사업 법인이 될 예정이다.

팀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파트너인 NHC는 사우디 자치행정주책부 산하의 국영기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내 부동산 거래의 70%가 NHC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는 ‘비전 2030’ 달성 일환으로 부동산 부문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시티 구축 등 DX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U+ “올라운더 과대표·헬씨파민 시대”

‘유쓰’ 20대 대학생 키워드 발표

LG유플러스는 자사 20대 전용 통신 브랜드 ‘유쓰(Uth)’가 20대를 정의하는 ‘2025 대학생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다.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선정한 내년 대학생 대표 키워드는 ‘올라운더 과대표’다. 다가가기 쉽지만 만능 캐릭터의 매력을 갖춘 캐릭터다.

20대의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는 헬씨파민이다. ‘맵파민(매운맛+도파민)’ 대신 건강하고 유익한 도파민으로 삶을 채워 나가는 트렌드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보다 한강에서 러닝을 하고, 맥주는 주점보다 야구장에서 먹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주요 러닝앱 이용자의 70% 이상이 20대다.

소비행태 분야에서는 OIY를 키워드로 꼽았다. 자신만의 취향에 맞춘 커스

터마이즈 상품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해진 옵션 안에서 본인 취향에 맞춘 개성있는 상품을 직접 만드는 것이 희소성이 높아 20대에게 가치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테크에서는 A급 ISTJ 팀원이 키워드로 선정됐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바라보는 20대들의 인식이 담긴 키워드다. ISTJ는 최근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MBTI)의 한 유형으로, ‘내향적(I), 현실적(S), 이성적(T), 계획적(J)’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다. 먼저 다가오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

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같은 AI 기술을 지향하는 바람을 담았다.

놀이문화 키워드는 ‘잼애피커다. ‘잼’에는 ‘재미있는 얘기’를 일컫는 신조어다. 어떠한 판단을 할 때 비용뿐 아니라 재미도 큰 비중을 두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가 숏폼(짧은 동영상)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랜덤 우정여행’이다. 지도에 다트를 던져 여행지를 정하는 놀이로, 비용과 관계 없이 여행지 선정 과정부터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대형증권사 '1兆 클럽' 진입 눈앞 금리인하 등 증권株 상승 기대감

한투증권, 누적 영업이익 1.1兆 돌파
삼성·미래에셋증권, 연내 진입 유력
브로커리지·IB 실적 긍정적 전망

대형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로 등으로 인해 증권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587억원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한 1조41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9949억원과 9145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올해 1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355억원, 7339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올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감소한 반면 해외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5000억원으로 80% 증가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지난 13



ChatGPT에 의해 생성된 1조클럽에 진입하는 증권사 이미지.

일 기준 1017억4600만 달러(약 142조 5718억원)에 달했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부실 등에 따른 총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 점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정책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및 파생금융 상품 관련 운용손익이 늘었고,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건조한 투자은행(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증권 업황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에서도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와중에도 증권주를 꾸준히 매수하는 등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삼성증권 주식

10만6275주를 추가매수하면서 지분을 12.94%에서 13.06%로 늘렸다. 지난 3월 지분율은 9.56% 수준이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보유 지분율도 각각 연초 대비 2.37%포인트, 0.13%포인트 증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IB 부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동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며 증권업의 높은 이익 수준 유지가 가능하고,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증권주 하방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난달 주식발행규모 590% 이상 급증 (전월 대비)

금감원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 7676억 기록
더본코리아 상장에 건수·규모 늘어

지난달 국내 기업들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식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5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부재했던 9월과 달리,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상장 성공하고 IPO 건수와 건당 규모가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10월 중 주식 발행 규모는 7676억원으로 전월(1111억원)보다 6565억원(590.7%)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IPO 대어'로 공모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케이뱅크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지난달 18일 상장을 연기했지만 9월에 비해 IPO 시장은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IPO 건수는 총 4건으로 규모는 618억원에 불과했지만, 10월 IPO 건수는 총 17건으로 늘고 규모는 6400억원으로 늘었다. 전월 대비 935.4%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측은 "IPO 건수와 건당 규모

가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부재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목적 IPO가 1건(더본코리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규모도 중소기업 유상증자 건수와 규모 증가로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유상증자 규모는 1277억원으로 전월(493억원) 대비 783억원(158.8%) 증가했다. 9월에 유상증자는 2건뿐이었으며 규모도 493억원에 그쳤다.

다만 회사채 발행 규모는 30조 3224억원으로, 전월(31조 5354억원) 대비 3.8%(1조 213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5조 260억원으로 전월(3조 710억원)보다 63.7%(1조 9550억원) 늘었지만, 금융채는 22조 9171억원으로 전월(26조 7643억원)보다 14.4%(3조 8472억원)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2조 3793억원으로 전월(1조 7001억원)보다 40.0%(6792억원) 증가했다.

잔액 규모로 보면 10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83조 1306억원으로 전월 말(672조 9873억원) 대비 1.5%(10조 1433억원) 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 추진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연내 구성종목 특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9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24일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증가한 만큼 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단, 이번 특별 편입에 따른 편출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으로 인해 기존 구성종목이 조기에 편출되는 경우 해당기업 및 투자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투자자 피해 및 연계상품 운용상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번 리밸런싱시 특별편입만 실시하고, 편출은 내년 정기변경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변경으로 인해 구성 종목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되며, 내년도 6월 진행되는 정기 변경에 맞춰 다시 100종목으로 복귀될 예정이다. 지수 구성종목 변경일은 1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특별 편입종목 수는 미정인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통했다

10兆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에
주가 전 거래일비 7.48% 올라
엔비디아 실적, 향후 흐름 좌우

삼성전자의 주가가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로 이틀 연속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초반 전 거래일 대비 7.48% 오르며 5만7500원까지 치솟았고 결국 3200원(5.98%) 상승한 5만6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지난 14일 4만9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4년 5개월만에 4만 원대까지 진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 장 마감 후 이사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10조원 중 3조원은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망 소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보통주 5014만 4628주와 우선주 691만 2036주를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종가 기준 각 2조6827억

원, 317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른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65% 내린 17만1700원에, 한미반도체는 1.35% 하락한 8만600원에 이날 장을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회사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업황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AI(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발표와 관련해 "경쟁력 약화 우려로 주가가 부진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판단하건대 금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금리, 환율 등 거시지표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메인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번 실적은 반도체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신축 착공식

코스콤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코스콤 안양센터 부지에서 '코스콤 안양 IDC 센터(新 안양 데이터센터)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코스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 1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코스콤은 안양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최첨단 금융 데이터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은 코스콤 윤창현 사장(아랫줄 가운데)과 코스콤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코스콤

한투운용, 바이오 종목 투자 ETF 2종 상장

ACE 글로벌빅파마 ETF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19일 새로 상장한다.

18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ACE 글로벌빅파마 ETF'는 글로벌 시장 내 대표적인 대형 제약회사(빅파마) 15개를 편입하는 상품이다. 빅파마 기업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기반한 우수한 자본력과 높은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ACE 글로벌빅파마 ETF는 빅파마 기업 중에서도 3년 예상 매출성장률이 상위권인 종목을 선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트렌드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방법론으로, 편입 이후에는 매출 증감에 따라 지수 내 비중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솔액티브 글로벌 빅파마 지

수 프라이스 리턴(Solactive Global Big Pharma Index Price Return)' 원화환산 지수다.

ACE 일라이릴리밸류체인 ETF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일라이릴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일라이릴리는 당노 및 비만치료제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2023년부터 제약바이오기업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ACE 일라이릴리밸류체인 ETF는 일라이릴리와 협업하는 핵심 밸류체인 14개 기업도 편입한다. 이는 최근 빅파마 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분업화 흐름을 반영한 운용 전략이다. 일라이릴리 역시 신약 중 약 50%는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해당 ETF의 기초지수는 '솔액티브 일라이 릴리 밸류체인 프라이스 리턴 지수(Solactive Eli Lilly Value Chain Price Return Index)' 원화환산 지수이다. /허정윤 기자

중소기업계 “R&D예산 복원하고, 상생금융지수 도입해야”

한동훈 당대표 초청 간담회

중기중앙회, 정책과제 45건 건의
외국인근로자 채용방식 개선 등 주장
한동훈 “은행업계 예대마진 줄여
대출이자 낮추는 움직임 필요”

중소기업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 및 장애인 고용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한대표 외에 김상헌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지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택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5200억원으로 올해의 1조3900억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2500억원 가량이 깎였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한동훈(왼쪽 다섯 번째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조77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에도 크게 줄어 중소기업 10만여개에서 12월에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여당 대표에게 삭감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유연근로제도 도입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 만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R&D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의 범위를 금융영역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운영안에 따르면 평가는 금융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되 대상은 처음엔 4대 시중은행에서 시작해 향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점을 줘 상생의 우열을 가려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목소리다.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마저 3D 업종을 기피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여전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다보니 수행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 요청이 빈번하고 과다한 급여 인상 요구와 잔업 요구 등으로 기업들의 피로도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

자가 입국하기 전 화상 면접을 통해 구직 및 채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고, 상방 협의회 채용시엔 5년 이내에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경비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페넨테크(Femtech) 산업 육성 등도 건의했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

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가 강조하는 6대 격차 중에서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면으로는 ▲벤처투자 신규 재원 발굴 및 참여주체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가업승계 관련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과건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제정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3년간 211억 투입... “협력사와 동반성장”

이랜시스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협력사 거래 ‘대금3원칙’ 준수 노력

코웨이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3년간 211억원을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 추가로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웨이, 협력사 대표 이랜시스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청라 이랜시스 본사에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협약대기업이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코웨이는 2019년 첫번째 협약 후 이번에 재협약을 체결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211억원의 지원을 약속해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코웨이는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기술력 강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전사·홍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전시회(P.I.F)를 개최해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 기술 국산화, 공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을 돕는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 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이달근 동반위원장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다시 한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코웨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협력사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위에서도 코웨이와 지속 협력해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지원 방안을 마

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상생 추진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웨이와 파트너사 간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코웨이의 경쟁력인 만큼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상호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기관표창·우수상 등 정부박람회 ‘3관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기관 표창을 포함해 3관왕을 수상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해 AI기술 등을 활용한 정부혁신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했다.

중진공은 박람회 첫날 현장발표로 진행한 ‘2024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에서 중소기업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를 활용한 기업경영 지원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진공이 40여년 이상 축적한 총 58만개사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성장경로 예측 ▲기업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수출품목 제안 ▲마케팅 등 기업 포지셔닝 등의 정보를 비즈패스파인더의 분석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노력과 청사진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표창도 수상했다. 한편 이튿날 일정으로 진행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선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부문에서 혁신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가정용가구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18일 에몬스에 따르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제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측정 모델

로,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품질 우수성을 소비자 및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국내 최고 권위의 품질만족도 종합지표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는 총 119개 부문을 대상으로 388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7만7000명이 사용 품질과 감성품질을 함께 평가했다. 해

당 평가로 에몬스는 ‘가정용 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13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에몬스 관계자는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선정은 에몬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가 직접 선정해서 주는 수상인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 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에몬스 김판수 감사(왼쪽)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3500억 투자로 미래농업 혁신 선도 디지털 육종 등 14개 프로젝트 추진

농진청, '농업연구개발 혁신 방안'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로 경쟁력 강화 권 청장 "민간 선도기술 적극 도입"

농촌진흥청이 미래농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35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14개 부문은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와 '미래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로 나뉜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1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민간의 선도기술을 적극 도입해, 그동안 한계에 부딪혔던 농업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이 프로젝트에 올해 대비 617억 원 늘어난 35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가칭)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각 품목별 핵심집단·유전체·표현체 등의 표준화된 육종정보를 플랫폼에 축적해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또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농업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해 내년에는 재배 환경과 작물생육 데이터 수집을 19품목에서 21품목으로 확대한다. 메탄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감 유전자(gs3)를 보유한 세계 최초 저메탄 벼(밀양360호)를 내년에 품종출원하고 농가실증을 통해 후년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점차 심화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농업 기계화를 추진한다. 내년에 양파, 배추 정식기 등 7종 농기계를 우선 개발하고 2027년까지 무·고구마 수확기 등 4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현재 110개 시군에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상재해·병해충·토양정보·가축사육기상정보 4개 시스템을 통합해,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응기술을 현장에 보급한다. 현재 40일의 2배(80~90일)까지 늘릴 수 있는 농진청 개발 저장기간 연장 기술을 2025년 실증작업을 거쳐 후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을 식의약 소재로 개

발해 수입 원료를 대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생산비의 37% 수준인 사료비와 10% 수준인 인건비의 절감 기술을 조기 실용화한다. 우울감 및 인지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치유농업을 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10대 프로젝트에 더해, '미래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는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농업위성·AI·로봇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정밀농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성 고부가마이크로바이옴과 농업용 플라스틱 제로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 고부가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개인맞춤형 식품, 대체단백질 개발 등 푸드테크 기술 혁신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해야”

김문수 장관, 경영혁신 방안 논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지부진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핵심 부처인데도 산하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이 지부진한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18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본부장, 대변인, 산하 공공기관 소관 국장, 감사관, 협조 요청사항 관련 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과 경영평가 개선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노동 개혁, 산업 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을 사례로 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63.7%에 달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치고 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신속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게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 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소 럽피스킨병, 경북 이어 전남까지 확산

농식품부, 출입 차량 소독 강화 요청

소 럽피스킨병(LSD)이 국내 9개 도(道) 가운데 6곳까지 확산했다. 올해 1~7월 기간 잠잠하던 LSD는 8월 경기에서 발생한 이후 충남·북도와 경북도 등으로 남하했다. 남부지방에서는 경북에 이어 지난 17일 전남에서도 검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에서 럽피스킨 양성률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영암군 및 인접 6개 시·군(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에 대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또 해당 지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럽

피스킨이 처음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집중유예 개체 백신 관리 및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 확인됐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12일 연중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석 달 사이 총 20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 16건(경기 5, 강원 7, 충남 2, 충북 2), 남부지방 4건(경북 2, 대구 1, 전남 1)이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한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국내 농가에서 검출되기 시작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실업 보호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도입 이후 23만여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며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을 위한 유일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구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활발한 활동과 인상적인 연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유선과 유태웅의 재능기부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혜택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국제표준 39종 개발 로드맵 공개

국표원, '반도체 표준화 포럼' 개최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 등 개발

정부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39종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로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2031년까지 총 39건의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한·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첨단패키징 분야에

서는 반도체를 수직 적층하기 위한 3차원 패키징, 칩렛(Chiplet) 기반의 EMC/EMI 평가 및 재배선층 유전체 소재 특성 평가 방법 등 후공정 첨단패키징 분야 국제표준 5건을 개발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메모리 산업에 국한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탈피하기 위한 펌토초 레이저 다이싱,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마스크 등 소재, 이종집적 방열소재, 초미세 공정용 원자층증착법 등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15건을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발전에 따라 초고전압, 초고주파에서 작동하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바,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4건 개발을 추진하고, 인간 두뇌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AI(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국제표준화 7건,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바이오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 반도체 국제표준 8건을 개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IAT “공공연구소·대학 기술 무상이전”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57개 나눔

공공연구소와 대학 16곳이 보유한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00여개 특허 기술이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연구소와 한양대 등 7개 대학 보유 기술 중 첨단로봇·반도체·헬스케어·보안 관련 기술 357개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해 사업화 기회를 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KIAT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술나눔 신청 방법 안내, 기술 제공기관과 나눔기술에 대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나눔 대상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나눔 신청 역시 장바구니에 해당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매출 상승, 고용 확대, 개발기간 단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등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부산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단계적 개편 박차

장거리 노선·배차간격 조정 시급
평균 배차간격, 시 전체 2분 단축
9개 노선 신설, 21개 노선 변경

부산시는 장거리 노선과 배차 간격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기장·강서 지역 등 도시 외형 확장에 따른 장거리 노선 증가로 시내버스 운행 시간은 2007년 평균 109분에서 지난해 161분으로 증가하고, 평균 배차 간격은 2007년 10분대에서 지난해 17분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2023년 8월~2024년 12월)'을 통해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노선 개편에 관한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7%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노선 개편 시 가장 원하는 것은 '장거리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단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노선 개편에서 나온 효과를 분석해 도심 지역은 만덕·센텀 도시화 고속도로, 사상·하단선, 부전·마산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년 이후 2단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 개편안으로 ▲기장·강서 지역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평균 6

분 단축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는 도시 고속형 버스 확대 도입 ▲신도시에 신규 노선 공급, 정관신도시에 내부순환선 도입 ▲기장 오시리아, 강서 지역에 수요 응답형 교통(DRT)을 확대 도입해 사각지대 없고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거리 노선 조정 등을 통해 기장·강서 지역은 평균 배차 간격을 6분 단축, 시 전체로는 2분 단축한다.

현재 안은 145개인 시내버스 노선을 144개로 조정하며 9개 노선을 신설, 21개 노선을 변경, 이용객이 매우 적거나 중복되는 10개 노선을 폐지하는 계획이다. 변경 및 폐지된 노선에는 대체 노선 공급 또는 수요 응답형 교통 공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이번 마련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의회, 구·군 의견 조회,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적극 반영해 내년 4월 중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안으로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일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 시민을 위한 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장려상

여주시(시장 정기명)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2024시즌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19개 종목 127개 팀 전지훈련을 유치해 연인원 6만 5천여 명 방문과 약 62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2개소와 체육관 3개소, 다양한 종목의 전용경기장이 마련됐으며, 올해는 종합경기장 내 체력단련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 선발

전남 함평군은 2024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1명을 선발해 12월 초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10월 중순까지 장학생 모집공고를 거쳐 심사 및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명을 선발했다.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242명의 학생에게 3억6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지원 규모는 3억4000여 만원이다. 대학생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도 지급한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기업 6곳 'CES 2025' 혁신상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를 앞두고 부산기업이 역대 최다인 6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 수상 기업은 ▲로보원(인공지능재활용 로봇, 로반) ▲피티브로(턱관절 질환 통증완화 홈케어 기기, 에어크리스) ▲집(집이식 휴대 여행용 기타, 모가비) ▲뉴에너지(탄소 저감 보일러 이온히팅시스템 구독 서비스) ▲씨아이티(Beyond 5G 통신환경의 mWave 대역용 안테나) ▲맵시(컴퓨터 비전 및 다중센서 기술이 적용된 해상 내비게이션) 등이다. 특히 로보원은 지속가능성&에너지&전력과 스마트시티 등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사천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상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내 4개 상수도 대행업체와 함께 수도 시설 동결·동파 긴급 지원반을 편성, 한파에 따라 수도관이 결빙되거나 계량기가 동파한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예정이다. 수도 시설 동결·동파 긴급 지원반은 4개반 29명으로 구성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울산시, 달천아이파크~천곡천 도로 준공

폭 20m, 연장 0.26km... 117억 투입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정상통행

울산시는 북구 천곡동 일원 지역 1만 3000여 세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천아이파크~천곡천 간 도로가 준공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8일 오후 쇠부리교에서 달천아이파크~천곡천 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김두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줄 자르기(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북구 천곡동 일원 내부 도로 미연결 구간인 폭 20m, 연장 0.26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11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부터 보상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의 이유로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2023년 2월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 1년 9개월 만인 이날 준공을 하게 됐다.

도로는 준공식 행사 이후 쇠부리교 내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11월 27일 낮 12시부터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천아이파크~천곡천 간 도로 개설로 천곡·상안·달천동 1만 3000여 세대의 교통편의와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시군과 협력해 내달 20일까지 진행
경남도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경남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 및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거제시는 지난 17일 거제시체육관에서 '2024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주시, 포장마차 테마 축제 진행

'윈터라이트 포차 in 경주'

경주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문화관 1918(구 경주역)에서 겨울 축제 '2024 윈터라이트 포차 in 경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주 사계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밤의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4 윈터라이트포차 in 경주'는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진행된다.

'포장마차'를 테마로 한 11개 음식 부스와 지역 대표 주류업체들이 운영하는 포차 광장과 포차 라운지가 마련된다. 또 경주법주 등 경주의 특산 주

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지역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경주문화관 1918 전시관 내부에서는 '차원의 문', '빛 속으로', '컬러 웨도우', '스포트라이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라이트쇼가 열려 축제의 화려함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생맥주 3500원, 소주 3000원, 법주막걸리 3000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하며, 떡갈비, 육전, 옛날통닭, 양고기구이, 봉어빵 등 40여 가지 안주류도 1000원부터 1만 2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거제시, 10개국 외국인노동자 한자리에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거제시는 지난 17일 거제시체육관에서 2024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80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10개국 외국인노동자 가수 입장을 시작으로,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 화합운동회,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체육관 바깥에 설치된 떡·식혜 등의 전통음식, 투호 등 전통 놀이 체험 부스를 이용하며 한국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행정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범죄예방, 고용허가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고, 산업안전 VR체험, 무료 이미지 봉사 부스를 운영하여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안정 속 쇄신’ 30대 CEO 발탁... 경영지원 대표에 허민회

CJ그룹 2025 정기임원인사

CJ그룹이 18일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로 허민회 CJ CGV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25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CJ CGV의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그룹의 핵심 가치인 ‘온리 원(ONLY ONE)’ 정신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CJ 측은 설명했다. 그룹 사업 전반의 속도감 있는 밸류-업(가치상승) 실행을 위해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됐고, 최고 인재를 중심으로 산하 경영진을 개편했다. 그룹 최초로 30대 CEO를 과감히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도 이어갔다.

CJ는 지주사 CJ주식회사의 기존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신임 허민회 대표가 경영지원대표를 맡아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경영대표와 경영지원대표를 겸직했던 김흥기 대표는 경영대표직을 맡는다. 지난해 말까지 CJ는 김흥기·강호성 대표 체제였으나 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그 동안 김 대표 혼자 회사를 이끌어왔다.

허민회 대표는 1986년 제일제당 신입공채로 입사해 CJ푸드빌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CJ오쇼핑 대표이



허민회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



정종민
CJ CGV 대표



방준식
CJ 4D플렉스 대표

위기 속 ‘온리 원’ 정신 재건 초점 “허민회, 중장기전략 실행 책임자” 윤상현 대표, CJ ENM 대표이사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 이선영 CJ CGV 신임대표에 정종민 내정

사, CJ ENM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는 CJ CGV 대표이사직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사업 구조 혁신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CJ 관계자는 “허민회 대표는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륜을 바탕으로 대외업무 총괄과 그룹 중기전략 실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CJ는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과 커머스부문 대표를 겸임했던 윤상현 대표를 CJ ENM 대표이사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를 겸하도록 했다. 윤 대표는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부 승진한다. 이선영 신임 대표는 2000년 CJ오쇼핑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CJ ENM 커머스부문 브랜드사업부장, MD본부장 등을 거쳤다.

‘미디어 커머스 큐레이션 플랫폼’ 진화를 추진하고 ‘원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상품 카테고리 and 브랜드를 발굴해 회사 경쟁력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CJ CGV 신임 대표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내정됐다. 정 신임 대표는 2012년 CJ CGV에 합류해 마케팅담당, 국내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터키법인을 총괄하며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업 건전성을 회복시켰다.

그룹 최초로 90년대생 CEO도 발탁했다. CJ CGV 자회사 CJ 4D플렉스 신임 대표에 1990년생 방준식 경영리더를 내정한 것. CJ는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극장 사업의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주도하기 위해 젊은 인재의 역할을 과감히 확대했다.

방준식 신임 대표는 2018년 CJ 4D플렉스에 합류해 콘텐츠사업팀장, 콘텐츠사업혁신TF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콘텐츠본부장을 맡아 BTS ‘옛 투 킴 인 시네마’, 월드컵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등 스크린X 기술을 적용한 CGV 특화 콘텐츠를 다수 기획해 글로벌로 유통하는 등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그 결과, CJ 4D플렉스의 2023년 매출액은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신임 경영리더에는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들을 발탁했다. 신임 경영리더의 평균 연령은 44.9세로, 1980년대생이 12명이다.

CJ 관계자는 “‘안정 속 쇄신’을 기조로 신상필책이 이뤄진 인사”라며 “그룹은 최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연중 수시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닷컴 ‘SSG머니’ 서비스 자체 간편결제 선배

SSG닷컴이 자체 간편결제 마니인 ‘SSG머니’의 충전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결제수단을 다변화하고 높은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SSG머니 충전결제는 SSG닷컴에서 상품주문 시 고객 계좌에서 SSG머니를 1만원 단위로 충전하고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다.

SSG닷컴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SSG페이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SSG닷컴에서 쇼핑할 때마다 SSG머니 충전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SSG머니는 주문금액 기준 1만원 단위로 자동 충전된다.

SSG머니 충전결제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적립 혜택이다. 횡수 제한없이 결제금액의 1.5%를 SSG머니로 적립해준다. SSG닷컴에서 구매한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다음날 SSG머니 계좌에 건당 1만원 한도로 SSG머니가 적립된다. 충전결제를 통해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잔액은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롯데마트, 반려동물 콘텐츠 집대성 ‘콜리올리 펫타운’ 오픈

신갈점에 1호점... 약 340평 규모 헬스케어·여가체험 공간 등 구성

롯데마트는 지난 14일 롯데마트 신갈점에 반려동물 토탈 케어 스토어 ‘콜리올리 펫타운’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리올리 펫타운’은 ‘내 집 앞 반려생활 중심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한곳에’란 콘셉트로 반려생활에 관련된 콘텐츠를 집대성한 공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74만 가구로 증가해 국내 전체 가구의 2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롯데마트는 지속 성장중인 반



롯데마트 신갈점 ‘콜리올리 펫타운’.

/롯데마트

려동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가치와 서비스를 전하고자 대형마트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토탈 케어 스토어 ‘콜리올리 펫타운’을 선보였다.

‘콜리올리 펫타운’ 1호점이 들어선 롯데마트 신갈점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 잠재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롯데마트는 신갈점 1층 전체 공간, 1124㎡(약 340평)를 ‘콜리올리 펫타운’에 할애했다. 대형마트 내 1층 전체 공간을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츠로 채운 사례는 이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시도다.

‘콜리올리 펫타운’은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공간을 비롯해 식품 및 용품 전문숍, 여가 및 문화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해당 특화 공간은 바닥재부터 가구까지 반려동물의 관철에 부담을 줄이는 자재를 사용했으며, 후각이 예민한 반려동물을 위해 하루 두 번 소독을 진행한다.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공간에는 펫유치원&호텔 ‘바우라움’, 동물의료센터 ‘닥터펫’, 펫보험 ‘펫쭈쭈’를 선보인다. ‘바우라움’은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반려견을 위한 호텔과 애견 교육시설을 갖춘 애견유치원을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웰푸드 글로벌 셰프 초청 베이킹 시연회에서 제레미 볼레스터 셰프가 시연을 보이고 있다.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락탈리스 글로벌 셰프 초청 베이킹 시연회 진행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유제품 기업 락탈리스(LACTALIS)사와 함께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셰프를 초청해 락탈리스의 프리미엄 유제품을 활용한 베이킹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르 꼬르동 블루·숙명아카데미에서 열린 이번 ‘프래지딩 셰프 앰배서더 시즌 메뉴 시연회’는 좋은 재료와 최고의 레시피를 관계자들과 공유해 베이커리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됐다.

롯데웰푸드는 1960년 국내 최초로 마가린을 생산한 이래 다양한 베이킹 원료를 공급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락탈리스와 협력해 ‘플로리’, ‘프래지딩’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원료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프래지딩 셰프 앰배서더’인 제레미 볼레스터와 마뉴엘 부이예가 시연자로 나섰다. 프래지딩 셰프 앰배서더는 락탈리스가 선정한 브랜드 홍보대사로, 평소 프래지딩 브랜드를 사용해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정상급 셰프를 의미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리아 “점심메뉴 12% 할인 받으세요” hy ‘관절 토탈케어’ 누적판매 300만병

오전 11시~ 오후 2시 ‘리아 런치’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가성비·가심비 전략의 점심 프로모션 ‘리아 런치’ 운영을 통해 점심 고객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리아 런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까지 롯데리아의 인기 세트 메뉴 6종을

기준 대비 약 12%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런치 프로모션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져가는 환경에 부담 없이 즐기는 든든한 한끼 전략의 리아 런치는 지난 9월 전년 대비 판매량 약 16% 상승에 이어 10월 판매량 또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며 긍정적 고객 반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hy의 ‘케어온 관절 토탈케어(이하 관절 토탈케어)’가 누적 판매량 300만 병을 돌파했다. hy는 신제품의 인기요인으로 관절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편의성을 꼽았다.

관절 토탈 케어는 출시 이후 정기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0월 기준 약 5만여명의 고객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이용 중이다. 출시 당시

와 비교해 약 93%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독 유지율 역시 90%를 상회하며 자사 타 제품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능성도 강점이다. 핵심 소재 ‘참나리추출분말’은 hy가 8년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개별인정형 원료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관절 건강에 미치는 유효성을 확인했다.

/신원선 기자

한미약품, 고소전 이어 '기부금 논란'... 경영권 분쟁 심화

주총 앞두고 의결권 쟁탈전
형제·3자 연합, 팽팽한 공방
재단 독립·공익성 보장 충돌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경영권 다툼이 그룹 내 재단에 대한 기부금 논란으로 퍼졌다. 한미약품그룹 내 가현문화재단 및 임성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8.09%인 만큼, 양 측은 재단 의결권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미약품그룹의 3자 연합 측은 임시 형제 측의 고소·고발에 대해 "경영권에 눈이 먼 형제들이 정권변경 특별결의가 두렵고 초조해 인륜을 저버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는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를 앞세워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고발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형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다. 의약품 유통업체인 코리그룹은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형제 측 인물로 분류된다.

형제 측은 해당 고발에서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19억원 상당의 기부금이 제공되면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

스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3자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혐의는 위계 및 업무방해다. 3자 연합 측이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해 주주관리와 주주총회 진행에 필요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형제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3자 연합 측은 형제 측이 문제 삼은 가현문화재단에 2022년 기부된 42억원, 2023년 60억원, 올해 상반기 17억원 등 총 119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52억원은 A 전 대표이사 시절 기부됐다는 점을 짚었다.

3자 연합 측은 "의도적으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몰아세우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고소한 것"이라며 "현재 A 전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와 임종윤 사장 개인회사 디엑스앤비엑스(DxVx)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임종윤 이사의 밀도 끝도 없는 고발에 A 전임 대표이사부터 조 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3자 연합 측은 "재단은 설립 후 지난 20여년간 법적 문제 없이 한미의 기부를 통해 운영돼 왔다"며 "심지어 임종윤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재단 기부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임종윤 전 대표이사는 약 76억원을, 임종훈 전 대표이사는 9억원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자 연합은 '공익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자 연합 측은 재단이 독립된 공익 법인으로서 해당 이사회 구성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형제 측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최근까지 이사회 결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확약서를 써줄 때까지 기부금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단 측에 발송했다. 확약서를 써주는 순간 의결권과 기부금 간 거래 행위가 완성돼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3자 연합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이 '건강한 V컷 화보 모델' 프로젝트를 전개해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했다. /광동제약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
'대학생 모델' 선발
활기찬 이미지 강화

광동제약은 '건강한 V컷 화보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젊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건강한 V컷 화보 모델' 프로젝트는 대학생 모델 선발 공모전으로 대학생들이 모델과 사진작가로 참여했다. 총 190여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독창적이고 신선한 각양각색의 작품을 선보였다.

최종 1위로 선정된 작품은 '고향에서의 여유'를 핵심 주제로, 학업에 지친 대학생이 옥수수수염차와 함께 휴식을 찾는 모습을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냈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감각적인 연출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표현력으로 온라인 투표에서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광동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AK그룹, 고준·이강용 대표 선임 전략통·현장 전문가 리더십 구축

변화·성장 위한 2025년 인사 단행
부사장·전무·상무 등 총 11명 선임

애경그룹은 고준 AK플라자 대표이사를 선임 AK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애경그룹은 AK플라자 대표이사에 이강용 AK플라자 상품본부장을 신규 선임하는 등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승진 3명, 상무보 신규 선임 6명 등 총 11명에 대한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표이사 임명 일자리는 오는 12월 1일로, 임원 선임 및 승진 발령일자는 2025년 1월 1일이다.

신임 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1973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과 카이스트 화학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고준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지난 2018년 애경에 합류했다. 애경그룹에 따르면 그는 지주회사 AK홀딩스에서 전략 기획을 총



고준 AK홀딩스 대표



이강용 AK플라자 대표

괄하며 변화를 주도해 온 '전략통' 인사로 알려졌다.

특히 고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1월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AK플라자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신임 이강용 AK플라자 대표이사는 1970년생으로 인하대학교에서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당시 애경백화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바이어로 시작해 원주점장, 분당점장, 상품본부장까지 두루 거친 순수 '애경맨'이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타미플루' 국내공급 계약 체결

HK이노엔이 한국로슈와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이달 14일부터 한국로슈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

'타미플루'는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플루엔자(A형, B형)의

바이러스 방출을 억제해 감염을 치료한다.

인플루엔자(독감)는 감기와 달리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에서 합병증을 발생시키거나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 혹은 일부에 한 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HLB, 간암 치료제 글로벌 진출 청신호

FDA 비모 실사 '규정 준수' 확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는 '간암 신약허가' 재신청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생물연구 모니터링인비모(BIMO)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NAI)'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비모 실사는 미국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절차로,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실사 주요 내용에는 연구 시설의 기록과 데이터 확인, 연구자 및 연구스태프 인터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료와 물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HLB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HLB가 간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한 두 개의 임상병원 중 두 곳을 추가로 해당 실사를 진행했고, '규정을 잘 준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실사 결과는 간암 신약허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HLB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미국 FDA 문턱을 넘겠다는 방침이다. HLB 측은 "간암 신약허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 실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CMC(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는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의약품이 일정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음을 문서화해 입증하는 것이다.

HLB는 지난 9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립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 재승인 신청을 완료해 이달 안에 승인 허가 여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골든블루, 하이볼 중심 위스키 시장 공략

㈜골든블루인터내셔널은 미국 증류주 기업 사제락컴퍼니(Sazerac Company)와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얼리타임즈(Early Times)'의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제락컴퍼니는 미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1위 증류주 기업으로, 1850년 창설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 총 8개 증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여개 이

상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양사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얼리타임즈의 주요 판매 타깃을 MZ세대로 맞췄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국내 위스키 시장 역시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 제품들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F 이자벨마랑
'25 SS 컬렉션' 선보여
보헤미안 스타일 제시

생활문화기업 LF의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마랑'이 2025년 봄·여름 제품군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자벨마랑은 프랑스 스타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매 시즌 보헤미안 감성을 담은 프랑스식 세련미를 제안해 왔다. 지난 9월 파리패션위크 런웨이를 통해 2025 봄·여름 제품군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욱 강렬해진 보헤미안 룩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신상 제품군은 열대 지방의 대자연 분위기에 이자벨마랑의 장인정신을 더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나비를 표현한 비단 원사 패턴과 팔력은 장식 등 야생을 연상케 하는 생동감 있는 디테일을 강조했다.

LF에 따르면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21일 청담 플래그십 매장에서 이자벨마랑 2025년 봄·여름 신제품 사전 공개 행사도 진행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자벨마랑 25SS 컬렉션 공개. /LF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을 넘어 그다음 세대까지 지키는 보험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언젠가 당신의 소중한 아이가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늘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신을 잘 아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그 마음 전합니다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보험금청구권 신탁: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삼성생명)가 관리 운영하여 생전에 지정한 가족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하는 상품

삼성패밀리오피스 02-2051-4030 서울FP센터 02-3706-3916 강남FP센터 02-3451-1700 경인FP센터 032-516-3900 경원FP센터 031-226-1529
충청FP센터 042-484-0821 대구FP센터 053-250-5150 호남FP센터 062-384-0592 부산FP센터 051-630-6620

*투자자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신탁계약은 운용자산별로 별도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보수는 집행보수 0.5%, 후취보수 연 0.3%가 발생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510호(2024.11.12 ~ 2025.11.11)

세상에서 가장 큰, 지붕 없는 실험실



하이트진로, 소방유가족에 생계비 등 지원금 전달

하이트진로는 순직한 소방관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유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왼쪽 첫번째)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 소방관 노모를 위한 유가족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등 총 15가구의 소방유가족 지원금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SK C&C, '행복스펙 UP 챌린지' 시상식

SK C&C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u-타워에서 장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행복스펙 UP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SK C&C 신용운 ESG전략담당(왼쪽)과 숙명여자대학교 김예지 학생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SK C&C



KB라이프생명, 김장 나눔 봉사활동... 600kg 기부

KB라이프생명 희망드림봉사단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가톨릭사랑 평화의 집'을 방문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KB라이프생명 희망드림봉사단 소속 임직원 13명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김장김치를 포장했다. 김장김치 600kg과 햅쌀 400kg을 서울역 인근 독거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KB라이프생명



동아오츠카, '서울 러너스 데이' 성료... 1500명 참여

동아오츠카는 16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한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2024 서울 러너스 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2024 서울 러너스 데이'는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달릴 수 있는 행사로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은 여의도 둘레길을 따라 8.4km의 코스를 완주했다. /동아오츠카

인사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채용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윤병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김재현
- ◆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채권본부 전상근 전무 △채권본부 조민식 상무

부음

▲김외수(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씨 별세, 박선애(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씨 남편상 = 18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0일 오전 9시. 055-249-1400



임 경 수 교수
라이프롱 디자인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빌린 실험이 있었다. 2004년에 MIT 미디어랩의 윌리엄 미첼 교수가 시도했던 플레이스랩(PlaceLab)이라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인간 행동과 공간 사용 데이터를 첨단기술로 분석하여 스마트 환경과 인간 중심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연구였다.

미첼 교수는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주거 및 도시 공간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며 스마트 시티와 데이터 기반 설계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술과 도시의 융합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앞장섰다. 아파트 한 채에 이르는 이 거대한 실험실

을 '살아 있는 실험실(Living Laboratory)'이라고 명명했다.

미첼 교수의 실험이 기억에서 채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유럽 대륙이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2006년이니까 유럽연합(EU)은 미첼 교수의 아이디어를 빌려 재빠르게 '살아 있는 실험실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를 만든 셈이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실험실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를 꼽아야 할 것이다.

ENoLL은 혁신적인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실험 공간을 지원하고 확산시켰다. 예를 들어 보자. 2016년에 독일 함부르크 주민들은 750명에 이르는 난민들의 거주지를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난민들을 위한 장소찾기 프로젝트라 하여 파인딩플레이스(Findin

g Place)라 명명된다.

함부르크 주민들은 증강현실 지도를 이용해 난민 주거 적합지를 34회에 걸쳐 시뮬레이션한 끝에 6개의 장소를 지방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파인딩플레이스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 포용성을 강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토머스쿤의 패러다임에 비유하자면 '지붕 없는 실험실'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2014년 즈음부터 우리나라에도 '지붕 없는 실험실'이 전개되었다. 북촌 IoT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 성대골 에너지 리빙랩은 기술과 시민 참여를 결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리빙랩 사례다.

서울의 북촌 IoT 리빙랩은 스마

트 기술을 활용해 전통 한옥마을의 관광 및 생활 환경을 개선했고, 대전의 건너유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을 위한 IoT 기반 솔루션을 실험했다. 서울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리빙랩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제시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붕 없는 실험실인 리빙랩은 지역사회를 살아 있는 실험실로 전환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실험하며, 이는 기술과 정책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혁신의 장이 된다. 리빙랩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살아 움직이는 실험의 본보기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에쓰오일,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사회복지협의회에 3억 전달

에쓰오일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에쓰오일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3억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쓰오일의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는 "에쓰오일의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에쓰오일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3억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에쓰오일 안종범 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쓰오일

적으로 나눔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겨울철에도 쉽게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Hope to You(油)' 캠페인을 통해 난방유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10년간 총 24억 5000만원을 후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솔루션, '에너지대상' 국무총리 표창

단체 수상자 중 유일 민간기업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이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에서 최고 등급을 취득하는 등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았다.

한화솔루션은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이 한국 에너지대상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국무총리 표창 단체 수상자 중에선 유일한 민간기업이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정부와에



한화솔루션이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한화솔루션 김범도 프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한화솔루션 화석생산담당 박종걸 상무. /한화솔루션

너지 다소비업자간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 KEEP30에서 기준연도(2019년) 대비 6.19%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해 최우수등급인 S를 취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CC글라스, '꿈나무 집' 주거환경 개선

흙씨씨 인테리어, LVT 바닥재 시공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흙씨씨 인테리어'가 오스템인플란트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인테리어 환경 개선 후원을 이어간다.

KCC글라스는 오스템인플란트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꿈나무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 환경 개선 공사를 끝내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KCC글라스와 오스템인플란트는 지난해 인테리어 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적 협력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KCC글라스 서진호 상무, 꿈나무의 집 이애순 원장, 오스템인플란트 임정빈 본부장이 후원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글라스

KCC글라스는 이번 개선 공사를 통해 흙씨씨 인테리어의 LVT(Luxury Vinyl Tile, 럭셔리비닐타일) 바닥재인 '센스타일 프로'를 시공하며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바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호타이어,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윈터크래프트 WP52 EV' 수상

금호타이어가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윈터크래프트(WinterCRAFT) WP52 EV(사진)' 제품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4 (Good Design Award 2024)' 제품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본상 수상 제품인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EV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고하중 전기차의 눈길 그립력과 제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D 블록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차현정 기자

콘텐츠진흥원, 성동규 상임감사 취임

(중앙대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3대 상임감사로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사진)가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1월 17일까지 2년 간이다.

성동규 상임감사는 여의도연구원장과 한국OTT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성동규 상임감사는 대통령



직인사위원회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했을 정도로 미디어콘텐츠 정책 전문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윤휘중 기자 yhj@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다이소와 100엔 숍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오랜만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이가 나를 부른다.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돌렸는데, 아漂亮! 책이 찢어지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내가 손가락 힘 조절을 실패한 것이다. 일단 찢어진 책을 보수하기 위해 투명 테이프를 찾아본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새로 테이프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어디에서 테이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간단한 의문에 여러 가지 답안이 머릿속을 맴돈다.

먼저 최근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물이다.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하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 그런데 투명 테이프 하나를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것이다. 당장 택배비가 테이프값보다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주문한다. 금액이 커지면 택배비가 무료로 변하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테이프가 필요하고 굳이 함께 살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테이프를 살 수 있는 곳은 문구점일 테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 문구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전엔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곳에 있었던 문구점이 어느 건물 4층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하지만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은 편의점인데, 집 근처 편의점에서 투명 테이프를 본 기억이 없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투명 테이프 하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명 테이프 하나를 당장 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 더 선택지가 있었다. 바로 다이소에 가면 투명 테이프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최근 다이소 매장이 여가저기 많이 생겨서 적어도 내 생활 반경에서는 대형 마트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이소는 일본 100엔 숍 중 하나의 브랜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일본의 100엔 숍은 생활 잡화와 문구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비하고 가격은 100엔으로 균일하게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여러 가게들이 재고 처리와 미끼 상품으로 100엔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100엔 제품만 판매하는 상설 매장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경제 불황이 닥쳤고 100엔 숍은 급속히 점포 수가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불황 시대의 성장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다이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물론 경기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다. 문구점이 사라진 것처럼 철물점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대형 마트를 찾게 되다 보니 이러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소를 더 찾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투명 테이프를 하나 사기 위해 펼쳤던 상상의 나라가 다이소에서 멈춘 것처럼 말이다.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여대의 품격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촉발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전국 여대로 번졌다. 현재까지 전국 4년제 7개 여대 중 이화여대를 제외한 여대 6곳이 남녀공학 반대 시위에 돌입하거나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덕여대에는 '공학전환반대' 등의 문구가 교내 인파의 건물은 물론, 아스팔트와 보도블록까지 붉은 스프레이로 새겨졌다. 동덕여대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54억여원에 달한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대학의 조처가 미흡하며 학생들이 시위 중인 서울여대도 캠퍼스 곳곳에 붉은 라커가 칠해졌다.

여자대학교는 가부장제가 확고했던 시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설립됐다. 대학마다 전신과 기원을 어디

에 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이화여대(1886년), 숙명여대(1912년), 성신여대(1936년), 동덕여대(1950년) 등 대부분 여대가 설립된 시기를 봐도 알 수 있다.

여대의 존재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20여 년 전부터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서는 시대. 특히,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리며 여대의 역할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은 확대됐다. 사실상 여성의 '사회적 힘'이 커진 상황도 이를 뒷받침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대의 존재 가치에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직은 사회 곳곳에 여성 차별 문제가 잔존하고 있고, 여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간 여대가 여성 지도자로서 교육받을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음에도 사회적 이견이 없다. 여대생들이 "들고 일어나기에" 그 이유가 충분하단 의미다.

하지만 시위 방법에는 아쉬움이 남는

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당시, 여의도에서 열린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당국에 관련 사건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열맞춘 바둑돌 같다'라는 표현마저 곳곳에서 나왔다.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 들마저 '선생님들 집회 응원한다'며 이례적인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웬은칼보다강하다." 사고·인론·저술·정보의 전달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환유한 말이다. '시위'는 '쉬이 칼'로 비유되지만, 지난 서이초 교사 관련 집회 당시 질서정연했던 교사들의 집회 모습은 '웬'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 여대 시위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칼'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대생들이 자신의 대학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길 기대해 본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10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돼지띠와 계약이 잘 성사. 48년생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60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72년생 변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여 일궈내자. 84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자.



37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49년생 이사해도 재화로 남비를 줄여야 한다. 61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73년생 이직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우물을. 85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있다.



3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0년생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잡아야 한다. 62년생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74년생 주식투자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86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39년생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51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63년생 내가 편안해야도 잘 풀린다. 75년생 여행으로 지출이 많아지니 사전 계획을 꼼꼼히. 87년생 오늘의 자산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40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52년생 집안 청소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시간을 가져보라. 6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76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시작. 88년생 후배의 참석으로 모임이 즐겁다.



41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 53년생 때 이른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남편을 본다. 65년생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도 인정. 7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서두르지 말고 실타래를 풀자. 89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42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하자. 54년생 횡재수로 재운이 있다. 6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78년생 너 자신을 알라처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90년생 자기진단하지 말고 병원을 가보라.



43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55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6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9년생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을 느낌. 91년생 무지개를 쫓아가나 잡지 않는다.



44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56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68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다. 80년생 병도 약도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92년생 잊는 듯 잊는 듯 조용히 지나야 하는 날.



45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7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되어 돌아오지만, 어찌 편치 않다. 69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81년생 불만이 있어도 차분히 고쳐나기도록. 93년생 인생사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46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메모하라. 70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82년생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에 실망 말고 약속부터 실행하여. 9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47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59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71년생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 83년생 어제부터 시작한 일에 마무리가 작게 실리가 이어져도 감사하. 95년생 마음의 상처를 없애기 위해 하루가 고단.



김상회의四季

머피의 법칙 오해

'머피의 법칙' 마음먹고 세차를 했는데, 새로 산 옷을 입고 데이트를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회사나 만남에 늦어서 조마조마한데 내가 탄 버스가 택시는 신호마다 걸리는 식이다. 굳이 머피의 법칙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실은 흔한 일이다. 이를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은 미국의 에드워드 머피라고 한다. 그는 미 공군 대위였는데 1949년 미국 공군의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위해 인체가 버틸 수 있는 중력 한계를 찾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부하 기술자들이 자신이 설계한 전극봉을 전부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하는 터무니없는 실수로 인해 실험은 전부 0이 나왔다. 이후 그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는 법칙을 만들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라고 정리하면서 일종의 징크스라고 볼 수도 있는 인식을 보통 명사화했다. 그러나 조작 실수로 실험값만 0이 나왔을 뿐, 이 실험결과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인체는 극심한 충격도 버틸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후에 자동차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의 감소를 이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머피의 법칙을 얘기하면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같은 부정적 징크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실재는 "잘못될 만한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교훈적인 발언이다. 에드워드 머피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요즘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을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안다면 망연자실 할 것만 같다.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뉘앙스였던 것이 불운의 대명사처럼 쓰이니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5	7	4	2			
	4							
3	7		2					1
9				5	7			
5	3						6	7
			1	2				5
1					6		8	2
						5		
	6	7	8	5	3			

		2	9	1			3	
5	3				7		6	
					5			8
		5	1					2
3								5
9						4	1	
1			2					
	7	6					8	3
6				8	4	1		

4	1	8	9	8	4	9	6	2
9	4	9	2	1	6	8	8	4
2	8	6	9	8	4	4	9	1
9	6	4	8	2	1	8	9	4
4	9	1	6	4	8	2	8	9
8	2	8	4	9	9	1	4	6
1	4	9	8	6	2	9	4	8
6	4	1	1	9	8	4	2	8
8	8	2	4	4	9	6	1	9

6	9	1	4	8	4	8	9	2
8	8	2	1	6	9	9	4	4
4	4	9	8	9	2	8	6	1
9	1	4	8	8	9	4	2	6
9	6	8	2	4	1	9	4	8
2	4	8	6	9	4	1	9	8
8	2	4	9	4	8	6	1	9
1	9	6	4	2	8	4	6	9
4	8	9	1	6	2	8	4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제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재시험 없이 정시 이월 가능성

연세대, 법원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서 등 제출
수험생, 본안 신속 진행 요청
교수노조, 재시험 실시 촉구
법적 공방 장기화 가능성 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재훈 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겪는 수시 논술전형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해당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은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내면서다. 이에 학생들에 이어 교수단체까지 "논술 재시험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앞서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을 논

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학 측이 바로 사실상 항고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지를 1시간가량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연세대는 수시 해당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던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연세대는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중지에 대해 15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의 정시 이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당초 해당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은 내달 13일이었다.

이에 해당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수험생들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그저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도 1만여명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단체도 연세대에 논술 재시험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연세대는 지난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운영 부실을 초

래했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라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시 이월은) 학생 기대와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학입학전형 위원회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결국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전원의 사퇴로까지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연세대 사안을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재시험을 볼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가 되레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면서도 "반대로 연세대가 해당 수시 논술전형 응시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에도 (수시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점검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점검 예정
불법행위 시 행정지도, 수사 추진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민원

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 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 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서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내년 3월 15일까지 지정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브(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cm에서 예상적설량 10cm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이 좀 더 빨라지게 됐다. 또한 도는 한파 재대본 협업부서에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11월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올겨울 대설,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자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취약계층 유아 정서·신체 발달 지원

내년부터 '서울런 키즈' 사업 시범운영

서울시가 취약계층 유아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촉진하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18일 6개 민간업체(단비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에누마,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와 '서울런 키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유아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민간업체의 시범 사업 참여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4~5세 유아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6개사의 유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약 10만 개), 기기,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리틀훈런(아이스크림에듀), 밀크T아이(천재교과서), 스마트올 키즈(웅진씽크빅), 엘리하이키즈(메가스터디교육), 윈크(단비



'서울런 키즈' 업무협약식 모습. /서울시

교육), 토도원(에누마)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콘텐츠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고 한글 익히기 ▲동요를 따라 부르며 몸 움직이기 ▲기본생활 습관 실천하기 등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6 | 해질 / 17:19

11월 19일 (화)
음력 : 10월 19일

수도권 날씨
0 ~ 1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9, 동두천 -4/9, 가평 -4/10, 파주 -4/9, 서울 0/10, 양평 -2/10, 인천 2/9, 수원 0/9, 용인 0/9, 평택 -2/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트럼프 주니어 "명칭한 짓" 비난
▲트럼프, 재무장관 후보 고심... "관세 부과 의지 요구" /사진 뉴시스

▲핀란드 등 북유럽 3국 '전쟁 주의보'... '비축물자 및 생존법' 팜플렛 발송
▲브라질서 G20 정상회의 개막... 트럼프·기후변화 대응 논의



▲영 스타머 총리, G20에서 시 주석과 회담... 英-中 정상 6년여만 /사진 뉴시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압도적 성과로 미국방부·나사에 영향력 ↑"



허윤홍 GS건설 대표
“자이” 리브랜딩 통해
실질적 혁신 보여줄 것”
08



Life

CJ그룹 임원인사
30대 CEO 발탁 등
안정 속 새신
니



수소환원 이끌고 지역사회 지키고... 지속가능 철강업 실천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포스코

포스코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포스코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취임 이래 공식 석상에서 지속가능 경영 과제를 꾸준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가 수긍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장 회장은 취임식에서 새 비전을 향한 세 가지 전략 방향으로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선도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구현 ▲신뢰받는 ESG경영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장인화 회장, 지속가능 경영 강조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과제 설정 수소환원제철 기술 역량 강화

그는 CEO 메시지를 통해 “미래기술 기반 초격차 비즈니스를 선도해 나가는 한편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며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를 구축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완수하고, 안전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사회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이행해 가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가자”고 말했다.

이처럼 장 회장의 행보에 따라 포스코는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업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로드맵

철강업이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포스코는 2020년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해 로드맵을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이 지난 6월 울릉도 바닷속에서 플라스틱통을 수거해 오는 모습. /포스코



지난 6일 포스텍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 7일 광양에서 ‘희망공간’ 현판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지난 1월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제시한 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개발 방식은 ‘하이렉스(HyREX)’이며 파이넥스(FINEX)유동환원로를 바탕으로 분 철광석과 수소를 사용해 쇳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파이넥스는 환원제로 수소 25%, 일산화탄소 75%를 사용하는데 수소를 100%까지 끌어올리면 수소환원제철이 되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1월 포상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열고 탄소중립 조지를 실 단위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해당 개발센터는 하이렉스 구현의 전 단계인 시험 설비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하며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기로 공장은 2025년 말 준공하며 2026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는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바로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과 혼합하는 합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배가스를 스크랩 예열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클린오션봉사단의 발걸음

포스코는 ‘클린오션봉사단’을 꾸려 수중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임직원 스킨스쿠버 등

호회에서 시작해 지난 2009년 창단한 포스코의 대표 재능봉사단이다. 클린오션봉사단은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포항·광양·서울 지역에서 379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클린오션봉사단 통해 바다숲 조성 1%나눔재단,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산불·태풍 등 재해 피해복구 지원

클린오션봉사단은 폐플라스틱 페어구, 타이어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황폐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가사리·성게 등 해적생물 퇴치도 진행해 바닷속 생물 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클린오션봉사단은 그룹사와 합동으로 철강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인공어초인 트리톤(Triton)이 투하된 울릉도·거제도·거문도 등 지역을 확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바다숲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 포스코1%나눔재단, 기부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힘 보태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포스코1%나눔재단도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해 기부자인 임직원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직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으면 포스코1%나눔재단이 후원에 나서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기부자들이 직접 기부금을 이용해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돕는 기부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기부자 참여 프로그램인 1%마리채(My Little Charity)는 기부자인 임직원이 직접 지역의 기부처를 추천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던 직원이 기부가 필요한 기관을 추천하면 기부자인 직원들이 추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기부금을 전달한다.

포스코그룹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체인지마이타운(Change My Town)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체인지마이타운은 기부자인 임직원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제안하면 포스코1%나눔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21년 경북 포항시 죽장면에 태풍이 발생한 당시 봉사활동과 연계해 태풍 피해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했고,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때도 같은 사업으로 복구를 도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장애인과 미래 세대, 다문화, 문화예술 분야 등 지난 10년 동안 30만3844명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최종전 호주에 5-2 승리 /사진 뉴시스
▲ 대한럭비협회, ‘유소년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태그럭비 대회’ 개최

▲ 클리블랜드, 샐럿 꺾고 개막 15연승...NBA 두 번째 최장 기록
▲ KT, FA 임상백 보상선수로 한화 장진혁 지명...“외야 시너지 기대”



▲ “계획 세웠다”...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선언 /사진 뉴시스
▲ 여자농구 올스타전, 내달 부천시 개최...한일 올스타 맞대결